

	제목	Ottoman Army Effectiveness in World War I: A Comparative Study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Routledge
	발행일	2014. 4. 30.
	저자	Edward J. Erickson
	출판도시	Abingdon
	페이지수	256
	ISBN 또는 ISSN	978-0415762144

**내용 요약**

『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군대의 효력: 비교사적 연구』는 오스만 제국의 후진적인 본질에도 불구하고 1차 세계대전 동안 오스만 군대가 전쟁의 수준과 효력을 최고조로 높였음을 밝히는 책이다.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오스만 제국이 전장에서 성공한 것은 외부적인 요인, 즉 독일인 장군과 장교들의 존재, 기후, 날씨, 적국이 가진 부정확한 정보, 적국의 아마추어적인 작전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군사전략가인 저자 에릭슨 대령은 기후나 날씨 같은 요소들은 적국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 요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저자의 결론은 오스만 군대가 조직적인 전술, 경험 많은 지휘관들, 전투를 조직하는 능력, 독일의 전쟁 양식을 모방하여 적용하는 능력 등 내부적인 요인으로 성공하였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전장에서 전투원간의 상호 소통과 영향이 전투 효과를 배가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책은 총 6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 1장은 ‘재난의 잿더미에서’, 2장은 ‘1915년의 갈리폴리’, 3장은 ‘1916년의 쿠트 알 아마라’, 4장은 ‘1917년의 3차 가자-베에르세바’, 5장은 ‘1918년의 메기도’, 6장은 ‘결론: 군대의 강점’에 관해 설명하였다. 저자는 터키인에 대항해 싸운 영국군 150만 명 중 오스만 군대의 손에 죽은 사망자가 264,000명이었다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90만 명에 불과한 오스만 군대의 능력을 강조하였다. 부록으로 오스만 군대의 계급, 1918년의 다른 전쟁의 위협들, 오스만 보병 분류를 담고 있어서 오스만 군대 내부의 조직적 상황도 알 수 있게 한다.